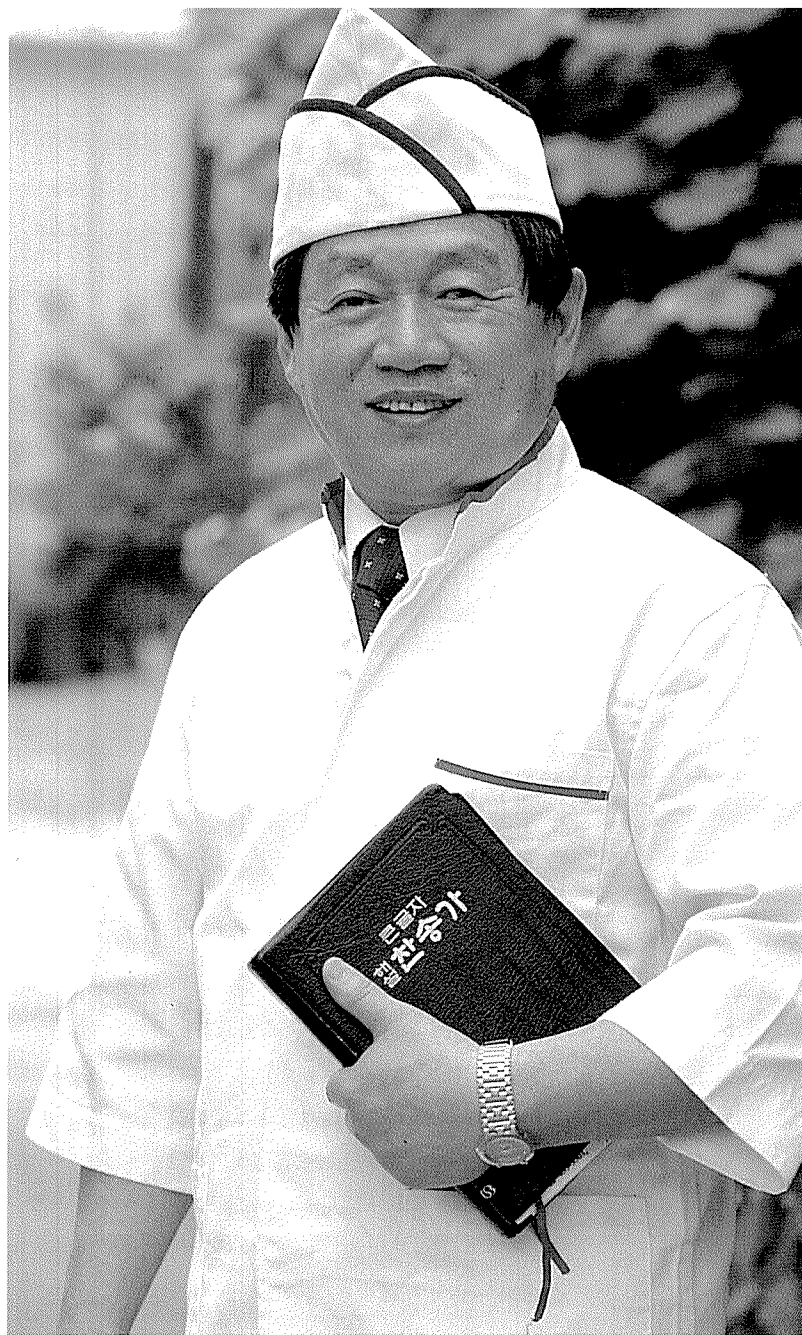


# 맨땅에서 일궈낸 빵굽는 야곱의 역사

신이문 벤엘 베이커리 서정문 사장



예루살렘 북쪽 17km 지점에 위치한 '벤엘'. 헤브라이어(語)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구약성서에 따르면 '야곱'이 꿈에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번영된 삶을 보장받았던 '기적'의 땅이다.

여기 스스로의 인생을 '기적'의 창조 과정이라 믿는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서정문(54세). 새벽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밀가루를 묻혀 가며 빵을 만드는 전형적인 제과인이다. 그 역시 자신을 '빵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그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지인들이 늘고 있다. 그의 또다른 이름은 다름 아닌 '목사님'.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상경해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빵 기술'을 배웠다는 그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기까지. 그 다녔던 과정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는 기적의 실천자이자 기적 그 자체의 의미로 다가선다.



## 제과 기술, 늦깎이 공부...신앙의 단초

그의 별명은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다. 주중에는 '벤엘 베이커리'에서 아침마다 빵을 구워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주말에는 '벤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허기진 영혼을 달래준다. 그 스스로도 육체와 정신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양 갈래 삶에 대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한다. 그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도 제과인이기 때문이었으니 어찌 보면 그의 두 가지 삶은 미리 정해진 운명의 수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 상경해서 제과 기술을 배웠던 제과점 주인을 따라 예배

## 벤엘교회



담임목사: 서 정 문  
 신교사: 차순전도사    심방: 서지혜전도사  
 트림: 장호            반주: 서선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321-110  
 ☎ 439-9501, 팩스 965-0181



당에 들어실 때까지만 해도 35년 후의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겨우 초등학교 졸업장 밖에 쥐지 않은 제가 언감생심 목사가 되리라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먹고살기에도 급급했는데 말이죠.” 그러던 그에게 목회자로서의 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바로 늦깎이 공부였다. 십수년 간 제과 기술만 알던 그가 잠시 한눈을 팔아 제재소에 손을 대다 부도를 맞은 것이 계기가 됐다.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아도 구름처럼 모여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때로는 빈털터리가 된 그를 드러내 놓고 무시했다. 재기를 위해 그리고 한없이 위축돼 있던 스스로에게 당당해지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이 다름 아닌 공부였다. 일단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부터 시작했다. 같이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쉽게 따라주지 않는 머리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 하지만 그는 ‘또 다시 좌절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불철주야 학업에 매달렸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까지 단숨에 합격했다.

### 좋은 일 하는 제과인들의 통로가 되고파

자신감을 얻어 새로 시작한 제과 재료상 ‘벤엘 상사’가 탄탄 궤도에 올랐을 즈음 목회자로서의 현재가 있게끔 해준 그 만의 체험이 있었다.

“갑자기 다리와 입이 마비가 돼 몇 일을 전전궁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마비됐던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찬송이 튀어나오더니 다시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몸소 체험한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했기 때문. 신학 대학교 대학원을 차례로 졸업하고 '97년 목사 고시에 합격해 안수를 받기까지 그는 오직 그 이유 하나만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공했다. “‘음주가무’를 즐겼던 예전의 모습에

비취 볼 때 그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기적’이라 말한다.

'97년부터 1년 간 공군 제 8217부대에서 군목으로 파송 활동을 하기도 했던 그는 올해 1월 중랑구 중화동에 ‘벤엘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나 자신의 교회 개척보다 그가 더욱 뿌듯해하는 것이 있다. 그가 그간 물심양면으로 돌보고 있던 7명의 출소자들이 하나 둘씩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들 중에서는 그와 같이 목사의 길을 걷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하니 그의 보람이 어느 정도인지

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요즘 그동안 단절했던 제과 관련 친목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제과인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내년 즈음에는 ‘벤엘 베이커리’를 열고 ‘벤엘 교회’를 통한 목회 활동에만 전념할 예정인 그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야곱’ 이기를 꿈꾼다.

(글 / 김미선 sunny@mbakery.co.kr)

